장미란, 세계선수권 2연패

작년 이어 도미니카 역도대회 용상·합계 금메달

인상 135㎏ 용상 179㎏ 합계 314㎏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23·원주시청)이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이뤘다.

장미란은 8일(한국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대회 여자 최중량급(75㎏이상급)에서 인상 135㎏, 용상 179㎏, 합계 314㎏을 기록해 용상과 합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인상에서는 은메달. 장미란은 이로써 지난 해 11월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용상과 합계 타이틀을 거머쥔데 이어 대회 2연패를 이뤘다. 한국에서 세계선수권을 두 차례 이상 석권한 선수는 장미란이 유일하다.

지난 해 대회 인상에서 장미란을 이겼던 무슈앙슈앙(22·중국)은 이번에도 장미란과 막판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이들의 대결은 대회 최고의 명승부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무슈앙슈앙은 인상 136㎏, 용상 178㎏, 합계 314㎏을 기록, 이번에도 인상에서는 1㎏ 차로 장미란을 따돌렸다. 하지만 용상에서는 1㎏ 차로 졌고 합계에서도 같은 중량을 기록했으나 체중이 130.91㎏으로 장미란(113.52㎏)보다 더 많이 나간 탓에 2위로 밀렸다. 장미란으로서는 인상 1차 시기를 실패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인상 1차에서 130㎏을 신청했다가 다 들어올렸던 바벨을 뒤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작전 싸움에서 불리해졌다.

장미란은 2차와 3차에서 차분하게 130㎏, 135㎏을 들어올려 1차 실패를 만회했으나 무슈앙슈앙이 2차 135㎏을 실패한 뒤 3차에서 136㎏을 성공해 뒤집기를 연출했다. 인상에서 1㎏ 차 뒤집기로 금메달을 놓친 장미란은 힘이 빠질 만도 했지만 용상과 합계에서 보여줄 더 짜릿한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장미란은 용상에서는 실수 없이 1, 2차에서 각각 170㎏, 175㎏을 들어 1, 2차에서 165㎏, 172㎏을 성공한 무슈앙슈앙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하지만 무슈앙슈앙이 3차에서 모험수인 178㎏을 느닷없이 성공시키는 바람에 용상에서 3㎏, 합계에서 4㎏ 뒤지는 등 상황이 장미란에게 불리한 쪽으로 돌변했다.

장미란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시기에 179㎏을 신청했다. 성공하면 용상에서 1㎏ 차로 금메달을 따내고 합계에서도 체중차로 타이틀을 틀어쥐지만 실패하면 은메달 3개에 그치는,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이었다.

플랫폼에 오른 장미란은 평소보다 시간을 끌어 관중의 초조함을 자아냈지만 끝내 바벨을 번쩍 들어올렸고 응원 나온 200여 교민들의 꽹과리 소리와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여자하키월드컵선수권대회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공을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장미란은 누구

여자 역도 최중량급 합계 세계기록 보유자

세계선수권대회를 2연패한 장미란(23·원주시청)은 여자 역도 최중량급(75㎏이상급) 합계 세계기록을 갖고 있는 한국의 간판.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당시 세계 챔피언 탕공홍(중국)과 금메달을 다퉜으나 애매한 심판 판정 끝에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긴 허리와 튼튼한 다리를 타고 나 일찌감치 고교시절부터 한국 여자 역도를 선도할 선수로 평가됐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안정감과 순간적인 집중력이 뛰어난 장미란은 인터뷰 때마다 "전국체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은 내게 모두 같은 하나의 경기일 뿐이다. 자신과 싸움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장미란은 상지여중 3학년이던 1998년 10월 부모와 지도자의 권유로 바벨을 잡았고 다음 해 원주공고 시절부터 독주를 시작했다.

1999년 6월 전국선수권대회에서 용상 102.5㎏, 합계 177.5㎏으로 동메달 2개를 따면서 역도계에 이름을 알렸고 2000년 4월 춘계여자대회에서 인상 95㎏, 용상 130㎏, 합계 225㎏으로 3관왕이 된 이후로 국내에서는 한 차례도 정상을 놓지 않았다. 2001년 합계 250㎏→ 2003년 합계 272.5㎏→ 2004년 합계 302.5㎏→2006년 합계 세계기록 318㎏... 국제무대 기량발전도 일취월장으로 진행형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는 합계 302.5(130+172.5)㎏로 은메달을 따냈고 2005년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용상(172㎏)과 합계(300㎏) 세계 챔피언이 됐다. 2006년 5월 원주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초청대회에서는 합계 318㎏을 들어 세계기록(305㎏)을 13㎏이나 늘리며 기록에서도 세계 챔피언이 됐다. 아버지 장호철(52)씨와 어머니 이현자·48)씨 사이의 1남 2녀 가운데 첫 째로, 여동생 장미령(21.원주시청)은 실업팀 동료다.

이형택, 세계 40위권 진입 '눈앞'

한국 男 테니스선수론 최초

'대들보' 이형택(30·삼성증권)이 한국 남자 테니스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랭킹 4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눈 앞에 뒀다.

총상금 76만 5천 달러가 걸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AIG 재팬 오픈 챔피언십에서 단식 4강에 진출한 이형택은 랭킹 포인트 110점을 얻어 총 781점으로 9일 발표되는 ATP 랭킹에서 금주 57위보다 10계단 이상 상승한 40위권 후반 진입이 확정적이다.

이번 대회에서 9번 시드를 받고 출전한 이형택은 16강에서 세계 20위 드미트리 툴스노프(러시아)를 꺾은 데 이어 8강에서 토미 로브레도(8위·스페인)마저 누르는 대약진을 거듭했다.

40위권은 기량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세계 20위권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다. 매주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투어 대회에 꾸준히 참가, 포인트를 쌓으면서 일정 정도의 성적을 올려야 세계 40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 中 꺾고 9위 월드컵 여자하키

한국여자하키대표팀이 제11회 월드컵선수권대회에서 9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8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9-10위전에서 중국을 2-1로 누르고 9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은 전반 10분 최은영(한국체대)이 선제골을 넣었고 3분 뒤 박미현(인제대)이 한 골을 보태 경기 종료 직전 한 골을 만회한 중국의 추격을 뿌리쳤다. 1990년 7회 시드니대회 때부터 출전했던 한국은 그동안 3-5-5-6위의 성적을 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9위로 처졌다.

한편 일본은 5-6위전에서 미국을 1-0으로 꺾고 2007년 챔피언스트로피 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프랑스, 스코틀랜드에 0-1 패

유로 2008 조별리그

2006 독일 월드컵 준우승국 프랑스가 스코틀랜드에 덜미를 잡히며 체면을 구겼다.

프랑스는 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햄프덴 파크에서 열린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예선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월드컵 준우승 멤버들을 대거 투입하고도 후반 22분 수비수 게리 칼데론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홈팀 스코틀랜드에 0-1로 패했다.

이로써 2승1패가 된 프랑스는 3연승을 달린 스코틀랜드에 조 선두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다.

프랑스가 원정경기로 열린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및 월드컵 예선에서 패한 건 14년 만에 처음이다.

'축구종가' 잉글랜드는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마케도니아와 E조 3차전 홈경기에서 헛심 공방 끝에 0-0 무승부를 기록, 망신을 당했다.

같은 조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홈경기에서 전반 5분 터진 안드레이 아르샤빈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39분 아미트 벤 슈산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1-1로 비겨 또 다시 첫 승 기회를 날렸다. 러시아는 2무로 5위에 머물러 있다.

김하나 초대 챔피언 등극

WBA 여자 슈퍼플라이급

한국 여자복싱의 기대주 김하나(25)가 세계권투협회(WBA)가 신설한 여자 슈퍼플라이급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김하나는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 어울림누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WBA 여자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폰나파 수피나웡(24·태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2회 1분3초만에 KO승을 거뒀다.

지난 3월 WBA 여자 페더급 챔피언 결정전에 나섰다가 가오리준(23·중국)에 패했던 김하나는 이번에는 세 체급을 내려 슈퍼플라이급에 도전, 결국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지난 해 9월 프로무대에 데뷔한 이후 통산 전적도 6승(3KO)1패로 올라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 중계

9일(월)
▲메이저리그(05 : 00·Xports)
▲프로축구〈광주-전북〉(14 : 10·KBC)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17 : 45·SBS스포츠, 18 : 00·KBS SKY Sports)

10일(화)
▲메이저리그(05 : 00·Xports)